

김완섭 차관, 추석을 앞두고 해군 1함대를 찾아 장병 노고 격려

- 김완섭 차관은 동해함에 탑승하여 함선 내 주요시설과 장병 생활공간을 둘러보고 장병들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현장의견 수렴
- '24년 예산안은 장병 사기제고와 첨단기반 전투력 강화 등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분야에 중점 투자

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월 21일(목)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해군 제1함대를 방문하였다. 이번 방문을 통해 '24년 예산안의 4대 투자중점 중 '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' 분야의 재정투자 현황을 점검하고, 추석을 앞두고 국가·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였다.

김 차관은 제1함대에 정박 중인 동해함에 탑승하여 함선 내 주요 시설과 해군 장병들의 생활공간을 둘러보고, 승조원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장병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. 김 차관은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함선 안에서 보내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였다. 또한, 정부는 병봉급 인상(사회진출 지원금 포함)*과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** 등 장병 사기진작과 한국형 구축함의 전투능력 강화 등 첨단기반 전투력 강화***에 중점 투자 중이라고 설명하고, 장병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교육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.

* 병봉급(만원, 육군 병장기준): ('23) 130 → ('24안) 165 (+35)

** 장교(만원): ('23) 900 → ('24안) 1,200 (+300), 부사관: 750 → 1,000 (+250)

*** 한국형구축함(억원): ('23) 47→ ('24안) 998, 공개토-III Batch-II: ('23) 3,505 → ('24안) 4,948

장병들의 영내 병영생활관, 수리함정생활관 신축현장 등 부대 주거시설도 방문하였다. 김 차관은 노후숙소 전량 개선*, 주택수당 지급범위 확대(3년미만 초급간부 포함)**, 병영생활관 현대화 전환*** 등 장병들의 기본적인 주거 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하였다.

* 노후숙소 전량 개선(억원): ('23) 1,999 → ('24안) 4,196 (+2,197억원, +109.9%)

** 주택수당 지급범위 확대(억원): ('23) 529 → ('24안) 619 (+90억원, +17.1%)

*** 병영생활관 현대화 전환(억원): ('23) 93 → ('24안) 108 (+15억원, +16.1%)

담당 부서	재정정책국	책임자	과 장	하태원 (044-215-5480)
	재정정책협력과	담당자	사무관	문성희 (sh22moon@korea.kr)